국민행복 발원하는 '평화의 불' 밝히다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2부 행사에서 참석 내빈들이 평화의 불을 점등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 왼쪽 아래)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 왼쪽 아래서 두 번째)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평화의 불을 점등하고 있다.

[현장]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

조계종 중앙신도회 5일 광화문서 개최
2만 불자 운집해 〈금강경〉 독송 정진
"우리사회 평화, 국가 안녕 바라요"

봄비가 내린 4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화합을 염원하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2만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소리가 촛불과 태극기로 가득했던 광화문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정치 지도자들은 한데 모여 평화와 화합의 불을 점화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2017행복바라미 문화재축전' 현장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민화합과 국가안녕을 바라는 이들의 마음으로 따뜻했다.

대축전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빗줄기가 거세지는 와중에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온 500여 불자를 비롯한 각지의 불자들은 하나둘 씩 광장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했다. 영천 은해사 등 일부 불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처마 아래 자리를 잡기도 했다.

오후 4시부터 법고 소리가 광장을 메우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육법공양 예불에 이어 불자들이 우산을 들고, 우비를 착용한 채 금강경 독송정진을 진행했다.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응무소주 행어보시…"(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땅히 보시를 행할지니…)

행여 〈금강경〉 경전이 젖을까, 불자들은 각자 우산을 추켜들고 빗방울을 막았다.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에도 금강경 독송 소리는 커졌다. 광화문 앞 무대부터 광화문 역사 입구까지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들의 행렬은 이어졌다.

이윽고 40여 분 간 진행된 독송이 끝이 나고 2부 행사가 진행됐다. 행복바라미 홍보영상과 함께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늘 금강경의 깊은 울림처럼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옳음과 또 다른 옳음이 공존할 수 있는 청명한 사회로 함께 정진해가자"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뜻 깊은 현장에 함께 있음을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고, 실천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보다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불 이운'이 진행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은 불자들의 마음이 더해져 더욱 밝게 빛났다.



광화문 앞 무대부터 세종대왕상을 거쳐 광화문 역사까지 불자들의 행렬은 이어졌다.



우중에도 금강경을 독송하는 2만 불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2부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총괄본부장,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아내 김미경 교수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아내 이순삼 여사도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자비심을 주 사상으로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행복바라미야 말로 우리 불자와 불교가 앞장서 해야할 딱 좋은 보시행이 아닐까 싶다"며 "모연된 기금을 소외계층에게 회향하는 행복바라미가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는 불교계 행사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윤기중 포교사단장의 '평화기원문' 낭독을 시작으로 이날 모인 불자들의 마음은 하나가 됐다.

불자대중들은 "지난 반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처를 받은 시간이었다. 우리 불자들은 자신과 세상을 정화하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보살피는 사명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소통과 대화로 화합하는 사회 △평등한 삶을 누리는 차별없는 세상 △자비실천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경남 고성에서 온 옥천사 신도 서도순 씨(대덕수)는 "비가 안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다. 차안에서도 한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다"며 "부처님 불법으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 태고사 정타 스님도 "처음으로 광화문에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계기로 화합하는 모습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후 불자들은 남은 행사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성숙된 불자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쓰레기를 치우던 서울 불광사에서 온 고정림씨는 "불자들이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지만 불자들이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또 주변을 돕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불교가 보다 더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행복바라미 대축전은 4월 22일까지 전국 200여 모금소에서 나눔문화 캠페인으로 전개된다.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인천과 천안, 청주, 화성 강릉,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10여 곳에서 지역문화제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전기초, 쌍용촛대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